

혼미노시/와시가 만들어지기까지

와시는 일본 곳곳에서 만들고 있으며, 만드는 방법도 대개 비슷합니다. 식물 섬유, 물, 그리고 점성이 있는 분산제를 잘 섞고, 눈이 고운 다케스를 넣은 발틀로 뜨는, ‘나가시즈키’라는 기법으로 만든다는 점은 다른 지역의 와시 제작도 마찬가지지만, 미노 지방에서는 만드는 방법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내구성이 높은 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.

종이 섬유의 조정

나가시즈키는 세 가지 기본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우선 발틀을 식물 섬유, 물, 점성이 있는 분산제를 섞은 현탁액에 담가 다케스 표면에만 덮일 정도로 섬유를 뜬 다음, 재빨리 여분의 섬유를 흘려버립니다. 이 발틀로 떠서 기울이는 작업을 ‘게쇼미즈’라고 하며 섬유 막을 한 방향으로 얇게 펴므로써 매끈한 표면이 형성됩니다.

섬유 엮기

다음으로 섬유를 많이 뜨고 발틀을 앞뒤로 흔들어서 다케스 전체에 덮이도록 하는 ‘다테요리·요코요리’(‘다테요리’는 세로로, ‘요코요리’는 가로로 흔든다는 뜻)라는 작업을 합니다. 이 작업을 함으로써 긴 닥나무 섬유가 사방으로 엮힙니다. 원하는 두께가 나올 때까지 이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. 와시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동작을 앞뒤 방향 즉 몸 쪽을 향해 움직인 다음, 멀어지도록 왕복합니다. 하지만 미노 지방에서는 나아가 이를 옆 방향으로도 합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잘 찢어지지 않는 와시가 완성됩니다.

마무리

마지막 작업은 ‘하라이미즈’입니다. 이 공정에서는 게쇼미즈와 마찬가지로 섬유를 재빨리 뜨고서 버림으로써 섬유를 한 방향으로 정돈하여 와시의 겉표면을 형성합니다. 이렇게 해서 뜬 종이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겹치고, 하룻밤 압축하여 여분의 수분을 짜낸 뒤 한 장씩 햇볕에 건조시킵니다.